

# 쿠팡이 뺏긴 개인정보, AI가 활용한다면?



윤 휘 중 의  
잠시 쉼 표

“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흡쳤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떻게 도둑 맞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토머스 에디슨이 남긴 명언이다. 에디슨이 여기서 말한 ‘그’는 전기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다. 그는 윈트겐에게는 X레이 기술을, 리드 포레스트에게는 진공관 앰프 기술을, 굴리엘모 마르코니에게는 라디오 기술을 빼앗겼지만 그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약 83%는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를 이미 한 세기 전에 간파했나보다. 에디슨의 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와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쿠팡의 고객정보 3370만여건이 유출된 것이 알려져 정부와 기업, 고객 등 그야말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이번 사고로 정부는 또 다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

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고, 사고 당사자인 쿠팡엔 내부 통제가 허술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쿠팡의 경쟁업체들은 자사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이커머스 사업 협력에 나서고 있는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번 범죄 혐의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으로 알려지자, 혹여나 자사 사업과 연관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불안에 떨고 있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일반 소비자, 우리 국민이다. 이미 이 사건에 앞서 SK텔레콤, 롯데카드, KT 등 굵직한 대기업들의 어이 없는 대처로 개인정보가 탈탈 털려 더 이상 털릴 정보도 없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을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탈취 사건은 우리 기업들의 보안대처 체계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에디슨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보안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정보보호에 충실해야 할 기업들은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 감새도 채지 못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이 내부 관리 소홀임에도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제도에 통과하는 것에만 급급해 수백, 수천억원을 썼다. 그 덕에 각종 인증을 받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자사의 정보가 줄줄 새는 것은 알지 못했다.

사후 대응 부실도 똑 같은 패턴이다. 과거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쿠팡도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둑을 막지는 못해도 뭐가 도둑 맞았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그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의 보안 수준이다.

2026년을 목전에 둔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다. 너도나도 인공지능 전환(AX)을 외치고 있다. 기업의 업무 환경이 AI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서 사이버침해도 AI 기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범죄자들이 탈취해간 개인정보가 단순한 데이터였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AI가 이를 학습해 소비자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홍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업 내부 시스템 보안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yhj@metroseoul.co.kr

## 환율 상승 범인 = ‘쿨’한 투자자?



기지 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집은 포기했고 월급 때서 미국 우량주 사는 게 유일한 체테크인데, 이제는 환율 올랐다고 서학개미 탓이라니요?”라는 글이 돌았다. 투자자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연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해외투자 쏠림’을 지적했다.

숫자만 보면 틀린 지적은 아니다. 올해 1~3분기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달러로 92% 늘었고, 개인투자자도 74% 증가했다. 전체 해외 주식 투자에서 국민연금 비중은 34%, 개인은 23%. 10~11월 개인 순매수는 123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

이다. ‘쏠림’이라는 표현이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분들이 해외투자를 ‘쿨하잖아요’라며 한다”고 말한 뒤 커뮤니티엔 “누가 몇 부리려고 미국 주식 사냐”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여기에 ‘가짜 담화문’까지 퍼졌다.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세를 40%로 올리고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였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명백한 허위”라며 진화했지만, 투자자들은 “실제 의중을 흘린 것 아니냐”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환율이 이런 ‘행동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달러인덱스는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원화는 1400원대 중반에 고착돼 있고, 코스피는 9월 이후 40% 넘게 올랐는데도 원화 약세는 이어진다. 엔화 급락, 한·미 금리차,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확대,

대미 투자 협상 우려 등 구조적 요인이 훨씬 크다. 해외투자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전문가들도 “달러 수급 요인이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은 이미 외환보유액을 웃도는 해외자산을 쌓았고, 개인은 저성장·박스권 증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향했다. 오랜 불신의 ‘결과’를 두고 이제 와서 환율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해법은 다시 해외투자자로 향한다. 기재부·한은·복지부·국민연금은 4차 협의체를 가동해 연금의 해외투자 프레임워크를 손보려 하고, 환헤지 전략도 더 유연하게 쓰자는 논의가 나온다. 손대기 쉬운 부분부터 조정하겠다는 접근이다.

하지만 서학개미에게 해외투자는 ‘쿨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2일 (음 10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우자에게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48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뜻대로 풀린다. 60년생 고집 피우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 72년생 이성을 만나 모아 둔 비상금이 바닥이 난다. 84년생 사돈 앞에서 머느리 불평보다는.



37년생 금전거래는 차리리 주는 것이 좋다. 49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61년생 꿈을 버리지 마라. 73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85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38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50년생 상쾌한 바람이 부니 일도 상쾌하게 마무리. 62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고맙다. 74년생 출근시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86년생 내가 밀어아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39년생 관청이나 큰 단체에서 수주가 들어온다. 51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피해를 본다. 63년생 바쁘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 75년생 상대의 손실로 인해 나도 손실이니 도와라. 87년생 우물을 찾았는데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하다.



40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52년생 종신토록 양보해도 백 보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64년생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에 빠지지 말라. 76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말으니 파곤. 88년생 근면 검소한 생활 태도가 필요할텐데.



41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53년생 아이디어로 이름을 얻는다. 65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상대를 비난하지 마라. 77년생 뒤늦은 도박으로 점입가경(漸入佳境). 89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42년생 재물 앞에서 감정절제를 잘해야 한다. 54년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66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만 안다고 했다. 78년생 부모님의 지갑도 생각해 줘라. 90년생 편하고 한가로우니 일을 찾아보자.



43년생 오늘부터는 기술을 배우는 데 노력해보자. 55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67년생 한변을 참으면 열음이 편하다. 79년생 일없이 허망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 91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 것.



44년생 타인의 이성에게 유혹됨을 벗어나야 할 터. 5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68년생 영입으로 종일 꾸준한 이익이 온다. 80년생 경쟁자가 있지만 성실한 노력이 승부수. 92년생 능력에 부치는 일은 맞지를 말도록.



45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일시에 해결. 57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69년생 달리기만 하면 앞밖에 보지 못한다. 81년생 지인에게 손익을 너무 따지자 손실. 93년생 젊음은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니 힘낼 것.



46년생 운세에 맞춰 재물을 신중하게 써야 할 것. 58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70년생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날. 82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94년생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47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59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 71년생 초행길의 산행은 조심해야. 83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도 둘러보자. 9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으니 실력을.



## 김상회의四季

기도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힘겨운 일을 당하거나 희망을 품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이나 신령에게 소원을 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깊은 곳에 닿아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런 힘을 알기에 사람들은 기도를 하며 우주의 긍정적인 기운과 연결되고, 개인의 삶과 집안에 복을 부르며 재앙은 소멸하는 효험이 있다. 막힌 운을 열어주고 좋은 인연을 부르며, 집안의 화평과 번영을 약속하는 열쇠이다. 기도는 무엇보다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혼란에 빠졌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평온과 긍정의 힘을 얻는다. 사람들은 복된 운세를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그런 운세가 찾아가는 건 아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간다.

기도는 바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하고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하면 원하는 바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만사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복은 마음이 부르면 온다. 기도로 마음이 평온해지면 복이 그 기운을 타고 들어온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길을 잃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집안을 위한 기도는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화목을 불러온다.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화평이니 가족 중 누군가가 집심으로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기도할 때, 집안의 액운이나 불길한 기운을 소멸시키니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기도의 힘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다툼이나 불화, 재난을 사전에 막아준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들에게 복덕을 쌓는 유산이 되고, 자식의 기도는 부모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기도의 힘이 살아있는 집은 재물운과 명예운을 자식처럼 불러들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804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908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학기하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9 9 7 2 6 8 8

9 8 8 9 1 6 7 2 2

6 2 7 8 2 8 1 9 9

8 9 1 8 9 2 6 7

7 9 1 6 8 2 8 9 2

8 6 2 7 2 9 9 1 8

2 1 9 2 6 7 8 8 9

2 8 8 2 9 1 9 7 6

9 7 6 8 9 8 2 2 1

1 7 9 2 9 2 8 8 6

2 9 6 8 8 7 2 1 9

2 8 8 1 9 6 9 2 7

9 6 8 9 2 1 8 7 2

7 2 2 8 6 9 9 8 1

8 9 1 2 7 8 6 9 2

6 2 2 7 8 8 1 9 9

8 1 9 6 2 9 7 2 8

9 8 7 9 1 2 2 6 8